

# 관절경적 회전근 개 봉합술 후 통증에 대한 상견갑 신경 차단술의 효용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박경진 · 최의성 · 김용민 · 김동수 · 손현철 · 이은명

## 목 적

관절경적 회전근 개 봉합술 후 통증은 주로 초기에 심하게 호소한다. 통증 조절은 대부분 통증 자가 조절법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 이에 상견갑 신경 차단술을 통증 자가 조절법과 함께 실시 할 경우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본원에서 회전근 개 파열을 진단 받고 관절경적 회전근 개 봉합술을 시행받은 90예를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통증 자가 조절법만을 시행한 I군은 41예, 견갑신경 차단술만 시행한 II군은 19예, 두가지 같이 시행한 III군은 30예였다. 구역, 구토 저혈압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남자가 63예, 여자가 27예였으며 평균 연령은 50.0세(18~77세)였다. 자가 통증 조절법은 fentanyl과 ketorolac tromethamine을 이용하였고 상견갑 신경 차단술은 0.75% Ropivacaine 10CC를 상견갑 절흔 안에 주입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째의 통증의 정도를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수술 전 통증 정도는 관절 운동 시에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정도를 측정 하였고 수술 후는 안정시 느껴지는 통증 정도를 측정 하였다.

## 결 과

각 군간의 통증 정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수술 후 24시간까지를 초기,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를 후기로 분류하여 평가 할 수 있었다. 수술 후 초기에는 두가지 같이 시행한 III군에서 가장 큰 통증 조절의 효과가 보였고 이어서 II군, I군 순이었다. 후기에도 III군에서 통증 조절 효과가 가장 있었으나 상견갑 신경 차단술만을 시행한 II군 보다 오히려 통증 자가 조절법만을 시행한 I군에서 통증 조절 효과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수술 후 72시간까지 통증 자가 조절법과 함께 상견갑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III군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수술 후 초기에 효과적인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 상견갑 신경 차단술만을 시행한 II군은 수술 후 초기에는 통증 자가 조절법만 시행한 경우 보다 우수한 통증 조절 효과를 보였으나 후기에는 통증 자가 조절법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파열의 크기와 견봉성형술 실시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상견갑 신경 차단술에 의한 합병증은 단 1예도 없었다.

## 결 론

관절경적 회전근 개 봉합술 후 통증을 감소 시키기 위해 통증 자가 조절법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통증 감소를 보이는 경우는 적다. 상견갑 신경 차단술은 술기가 쉽고 간편하며 짧은 시간 안에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통증 자가 조절법과 같이 시행할 경우 효과적인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이며, 특히 통증 정도가 가장 심한 시기인 수술 후 초기의 통증 조절에 탁월하며 합병증 또한 거의 없는 우수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색인 단어:** 상견갑 절흔, 회전근 개 봉합술 후 통증, 상견갑 신경 차단술